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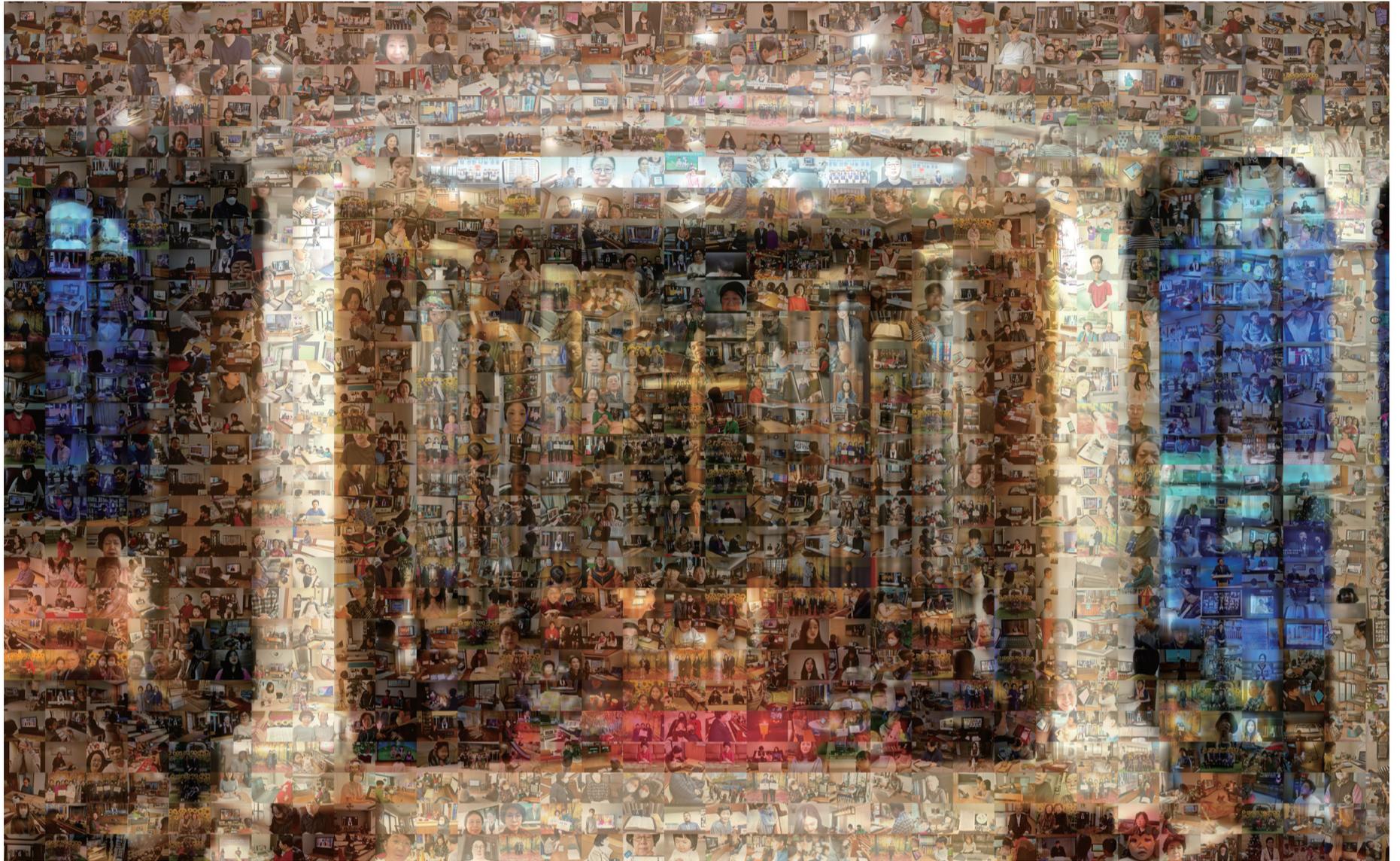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2021. 2. 17(수) ~ 4. 3(토)



코로나19, 신앙의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앙 돌아보고 믿음의 깊이 더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삶이 힘들어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말씀과 영상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직장생활로 주일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 참여가 여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출퇴근하면서, 장거리 지방출장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며 예배와 여러 기도회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요. 늘 영적 갈급함이 있었는데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1만분의 1mm, 작은 바이러스가 온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작년 2월 ‘예배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며 ‘비대면’은 어느덧 신앙생활의 중요한 규정이 되어버렸다. ‘성도의 교제를 우선으로 하는 교회는 흔들렸고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예배회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코로나19 사태 초기, 광림교회는 온전한 예배회복을 이룩하기 위한 방편으로 온라인 사역에 주목했다. 2008년부터 TV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와 말씀 프로그램을 송출하며 영상기획과 제작능력을 구축해온 광림교회는 비대면 예배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광림교회는 실시간 예배중계를 비롯한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제작, 성도들에게 제공하며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기가 됐다.

그 이면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이 조화를 이룬다면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밤낮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나섰다.

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며 기독교를 폄하하는 세상의 시선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

랑을 어떻게 흘러보낼지 모색했다.

현재 광림교회는 유튜브 채널과 비메오, 홈페이지를 통해 1~5부 주일예배와 수요치유의 신학, 금요은혜의 밤과 새벽예배, 교회학교, 청년부, 사랑부의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다. 또 주일설교 요약과 온타임 묵상, 츠즈 라이프, 어번던트라이프, 속회지도자교육 등의 영성회복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시간 업로드 하고 있다.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거룩한 ‘Zoom’ 예배

주일예배는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도입하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교인 가정과 연결해 동시에 합동 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대영 목사(문화홍보실)는 “Zoom을 통해 화면에 비춰진 성도들의 모습은 성도 없이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병상, 사업장 등 각자의 처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 순서에 따라 앉고 일어섬을 반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큰 은혜와 함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속회’ 또한 Zoom을 통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랜선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망설였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면 모임 이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고백했다.

특히 매주 제공되는 <속회지도자교육>은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과 속원들이 말씀의 이해를 넘어 삶에 적용까지 이르도록 돕고 있다.

또 각 선교구별로 온라인 임원수련회와 성경공부 등을 열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영성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3면에 계속

참된 안식을 얻을 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마가복음 3장 5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과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이삭을 자른 것으로 한차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주는 것을 고발 사유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독한 마음을 아셨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4절)라고 물으십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이나?”는 질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말하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규정과 틀 안에 갇혀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제쳐두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옥죄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6일간의 노동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인간을 제도 속에 가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으로써 율법과 위선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로서, 우리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된 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뜻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권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날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정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낙인을 찍었습니다. 몸은 쉬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악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고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며, 사랑으로 품는 날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생각을 갖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마가복음 3장 1~6절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
운에 일어설라 하시고 4. 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
노하시므로 그들을 돌려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섬기고 봉사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회당의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 드리기 위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질병을 얻으면, 그것이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병자들이 회당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앉아있었을까요? 아마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의도적으로 그를 앉혀놓았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을 허용하신 예수님이 과연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실지 살펴보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일종의 덫을 놓은 셈입니다.

예수님은 예상대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회당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안식,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질병과 육체적인 불편을 넘어서서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얻게 됩니다.

셋째,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노하시므로 그들을 돌려 보시고”(5절)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칭했던 병자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 악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주심으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되새겨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희망을 둘 만한 곳은 없고, 바리새인들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병과 사람들로 부터도 자유해지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기에 아무도 일하지 않던 날, 손 마른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움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안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기대,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참된 안식, 곧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를 따라가야 하는 연약한 삶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 1면에 이어

온라인 사역으로 믿음의 다음세대 세위가 코로나19는 교회학교 사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들의 결석이 장기화되며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회학교 각 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주 예배 영상과 위딩, 찬양, 말씀 놀이터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각 가정에 '공과카드'를 발송해 말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겨울성경학교'를 열어 아이들의 영적성장을 돕는 시간을 갖는다.

광림청년부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예배와 속회를 드리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며 개인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경향한 청년들은 공동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줌을 이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현재 청년부 속회 50% 정도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며 현장모임 이상의 나눔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목요쉐키나, 예비속장교육, 임원수련회, 겨울수련회 등 청년부의 모든 예배와 교육은 온라인과 병행되고 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믿음의 다음세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먼저 부모세대인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광림교회는 설 명절을 맞아 명절가정 예배문과 예배영상을 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가친척이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영상을 보며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과는 온라인 예배처럼 줌을 통해 서로 안부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왕상 2:3)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김정석 감독, 투병중인 목회자와 가족 찾아 심방

서울남연회 신년 교역자 금식 성회 통해 모아진 헌금 전달



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서울남연회 신년 교역자 금식 성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드러진 헌금 600여 만 원을 서울남연회 안에 있는 교역자, 사모, 자녀 중 투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암으로 투병중인 이상래 목사(영등포제일감리교회)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헌금을 전달했다. 또한 광명교회 부목사의 아들

남은찬(4살)이 바테르 증후군을 앓고 있어 교회를 방문하여 위로하며 헌금을 전달하였다.

앞으로 암으로 투병중인 신 욱 목사(오클랜드 열린문교회)와 뇌출혈(반신마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김영준 목사(성현교회 부목사), 암으로 투병중인 권희정 사모(생명나무교회 부목사 사모), 고관절 과사증을 앓고 있는 신림교회 부목사의 자녀 유승연(10살)에게도 위로와 헌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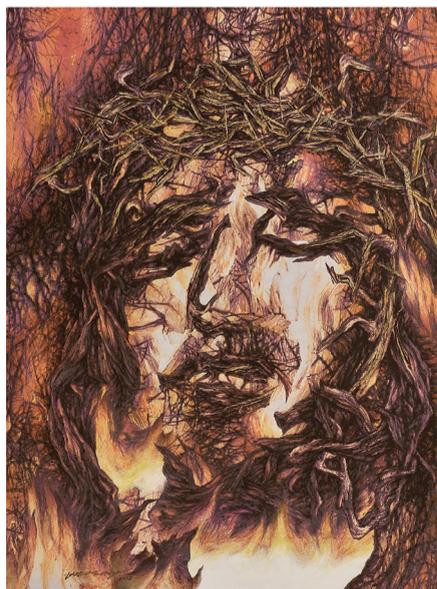
김현진 전도사

사순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서약

2021 사순절 갈보리기도회 2월 17일(수) ~ 4월 3일(토) 오전 5시, 6시

사순절은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경건훈련과 제자훈련을 체계화하는 절기이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일,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던 성찬식과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자 행하던 금식으로부터 그 유례를 찾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다.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습이었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기도를 통해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며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였다.

자기 부인과 자신이 죽는 것을 배우는 영적 훈련의 기간인 사순절에는 다음 사항들을

실천해보자.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둘째,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셋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한다.(기호식품, 군것질, 오락 등을 삼가 한다.) 넷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돕는다.

2021년 교회력 절기에 따르면 올해의 사순절은 2월 17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해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토)까지이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종려주일(3월 28일)로부터 시작하며, 4월 2일(금)에 성금요일성찬예배를 드리고 마침내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이한다.

광림교회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고전 1:18~19)을 주제로 사순절 갈보리기도회를 뎀엘성전(오전 5시)과 교육관 2층 예배실(오전 6시)에서 진행한다. 40일간 근신하고 절제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재가성하는 시간이다.

변영혜 기자 yhyun1010@hanmail.net

포토 뉴스



김정석 담임목사
담임목사 취임 20주년과 60회 생일을 맞아 장로회 주관 축하회를 가졌다.



여선교회총연합회
2월 월례회와 교육세미나를 열고 목회자, 장로, 여선교회원들에게 기도제목과 함께 떡을 나눴다.



광림외국인제자훈련센터
2월 7일 설 명절을 맞아 회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광림실업인선교회 신년하례회
1월 31일 광림실업인선교회 신년하례회가 있었다.

담임목사 동정



- 2/2 강남지방 여선교회 계삭회
- 2/4 남연회 나세남 선경위원회
- 2/4~5 감독회의
- 2/5 선교사 추모예배
- 2/7 여선교회 교육세미나
- 교사임명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수년 전 아내가 주일 아침 막내를 업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면, 나는 사우나로 향했다. 일주일 동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했으니 오늘만큼은 쉬어야 한다며 나를 위로했다.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교회에 안 가면 덜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다.

아내 백명순 권사의 첫 번째 기도제목은 나를 전도하는 것이었다. 내게 “함께 교회에 가지”고 할 때마다 “내가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 건 필요 없어”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나를 합리화 했었다.

그렇게 10년가량 지나고 백 권사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음일까? 2002년 말, 송구영신 예배에 가려고 준비하는 아내에게 “나도 같이 갈까?” 하고 따라 나서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목사님의 설교, 성가대의 찬송, 성찬식 등 모든 게 좋았고, 새해를 기도하며 시작 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후로 분당에 있는 광림남교회에 출석하며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로 인하여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주일예배는 물론 각종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며 믿음도 자라났다. 하나님을 늦게 영접한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알기 위해 맡겨주시는 교구 회장, 연합회장 직분과 예배위원회 봉사 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딪힐 때 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꼭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31년간 몸 담았던 한국도로공사에서 강원본부와 수도권본부에 근무 할 때 신우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후배들이 수요일 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설 때 처음 마주하는 안내자의 밝은 표정과 인사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일마다 예배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처음 교회에서 느꼈던 감동과 그 동안 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기도한다.



유시영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5선교구연합회장)

<속회지도자 교육 시즌 2>

성경 속으로, 삶 속으로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2021년 상반기 속회지도자교육 시즌 2가 시작 되었다. 감리교회 신앙공동체인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다. 속회는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모임이다.

속장들을 위해 12주간 유튜브로 진행되는 속회지도자교육 시즌 2의 공과 주제 말씀은 창세기이다. 모든 성경의 시작이며 전체 성경 구속사의 방향을 잡아 주는 창세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와 은혜를 배울 수 있다.

속회지도자교육의 각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오세우 목사, 김기윤 목사, 김요섭 목사를 만나보았다.

속회지도자교육 시즌2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요섭 목사: “이번 속회지도자교육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저는 앞부분 ‘성경 속으로’라는 단락에서 성경 본문의 지리적 배경과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속회지도자교육을 통해 속장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본문성경의 배경을 알려드려 속회를 인도하실 때 좀 더 쉽게 공과 내용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세우 목사: “본문 말씀은 성서 학당처럼

공과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해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속도원들과 치유의 시간과 영적 풍요로움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기윤 목사: “적용 부분 ‘삶 속으로’는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을 위하여 적용 점을 모색해 봄으로써 공과의 말씀이 삶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김요섭 목사님의 성경 속으로는 정적인 느낌으로, 오세우 목사님의 본문 설명은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적용 부분 삶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내재되어 그 목적에 맞게 변화되고 증거 하는 삶이 되길 바라며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진행하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전하는 교육의 반응은?

김기윤 목사, 김요섭 목사: “시즌 1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조회 수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시즌 3, 시즌 4 등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대의 유튜브에 익숙하신 성도님들에게 20여분의 영상이 다소 길게 느껴질까 걱정했지만 그 내용이 충실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

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올린 당일 저녁에 500회 이상 조회 수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속장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속회에서 직접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속회지도자교육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은?

오세우 목사: “코로나19로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 일수록 속회가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비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속도원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속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영상에 익숙하지 않는 70~80대 어르신들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거기에 길이 있고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만 하는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고 손 내밀어 주시면 분명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번 시즌 2를 통해 속장님들이 말씀에 깊이 집중하고 붙들어야 속회도 살고, 우리 영혼도 살고, 결국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희경 기자 xijing1970-@naver.com

“새가족교육으로 교회와 더 가까워졌어요”

전담강사제로 새신자 정착률 높여



광림교회는 새신자의 정착을 위해 새가족 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에서 8주 동안 교육을 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새신자의 만족도와 교회 정착률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새 기쁨반과 새 생명반으로 나누어진다. 1단계로 첫 4주간은 새 기쁨반이며 전담강사제로 4명의 장로(장사도, 신성수, 이

기식, 안경섭)가 한 주씩 새신자를 담당하며 4주간 교육을 시킨다. 교회생활과 신앙생활, 관계성 등에 대해 밀착교육을 통해서 관계성을 강화하고 교회 곳곳에 봉사할 곳도 연결해 주고 있다. 교육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2단계는 새 생명반으로 5~8주까지 성경적 교리에 대해 목사와 전도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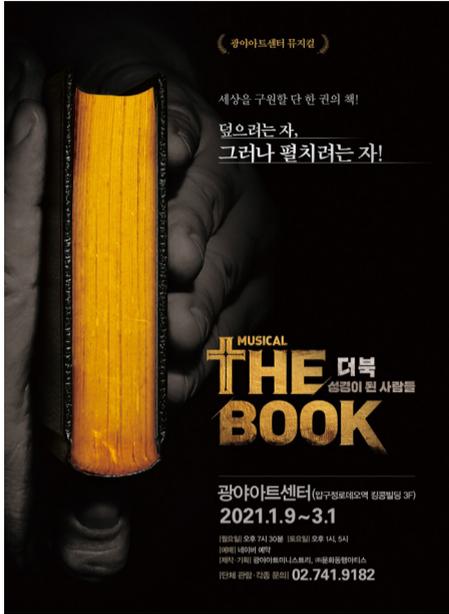
새신자 2명을 담당했던 이기식 장로는 “이번 교육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힘은 들었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시작 시간보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모습과 4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에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프로그램이 새신자가 교회에 적응하기에 수월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들과 관계성을 가지고 친밀감을 높인 후 교리 교육을 받게 되면서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새신자 교육을 받은 이인규 성도는 “저는 작년 8월에 처음 광림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은 8주에 걸쳐 받았습니다. 특히 이기식 장로님의 헌신적인 말씀과 관심 덕분에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장로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지만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실업인선교회에도 들어가 친교와 봉사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로 인한 유익함이 커져 가능한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교육의 기쁨을 전했다.

백명순 기자 bmsoon@naver.com

청년부 속회활성화 프로젝트 “얼굴 한번 봐야지!”

크리스천 뮤지컬 <The Book> 관람



광림교회 청년부는 1월 30일(토)에 “얼굴 한번 봐야지”라는 제목으로 속회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로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속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속회별로 크리스천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기독교 뮤지컬 ‘광아트센터(대표 윤성인)와 연계하여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광아트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3회 공연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

부는 토요일 뮤지컬 “The Book(더 북)” 공연을 2회에 걸쳐 전관 대여했습니다. 14~15세기 유럽 종교개혁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낸 복음의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뮤지컬 “The Book(더 북)” 공연을 안전하게 관람하고,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면서 속회에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의 발걸음이 속회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새롭게 등반해 올랐던 새내기 청년들도 청년부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연 속장은 “속원들과 함께 본 뮤지컬은 나와 속원들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습

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자신의 인상깊은 장면들을 나누면서 각자 차마 느끼지 못했던 부분까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주 속회에서 속원들 모두 함께 뮤지컬 본 것을 감사한 일로 꼽았습니다. 좋은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하나님과 광림교회 청년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새내기 윤지민 자매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속회로 모일 수 있어서 좋았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하루인 것 같았습니다. 또한, 공연을 보면서 ‘not alone’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 중 ‘나는 믿네,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난 걸이라는 구절을 듣고 위안이 되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광림교회 청년부 속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함으로 2021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공감과 위로의 속회

광림교회 청년부 1교구 속장 김 철입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제가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 5년 전, 1년 9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좋은 선후임과 간부들, 군종 목사님을 만나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전역 후 광림교회 1부 미가엘 성가대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좋아하는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 일의 특성상,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았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 찬양 연습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부끄럽게도 찬양 후에 성가대석에서 잠드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고, 그렇게 성가대에서 받은 처음의 은혜와 즐거움은 제 마음속에서 점차 퇴색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들은 설교 말씀이 기억 나지 않고 영혼 없이 몸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 끝에 청년부에 먼저 다니고 있던 성가대 친구를 통하여 청년부 예배와 속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된 청년부 속회에서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나눔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원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권면과 격려를 통해 저 또한 믿음 안에서 크고 작은 결단과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 역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난 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내게 허락하신 순간까지 최대한 순종해보자는 마음을 따라 속장이 되었습니다.

속장으로 섬긴다는 것이 부족한 저에게 아직까지 벅찬 일이지만, 속회 안에서 성장하는 속원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큰 은혜이자 기쁨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한번 더 감사하며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새 날들을 향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광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 철 속장(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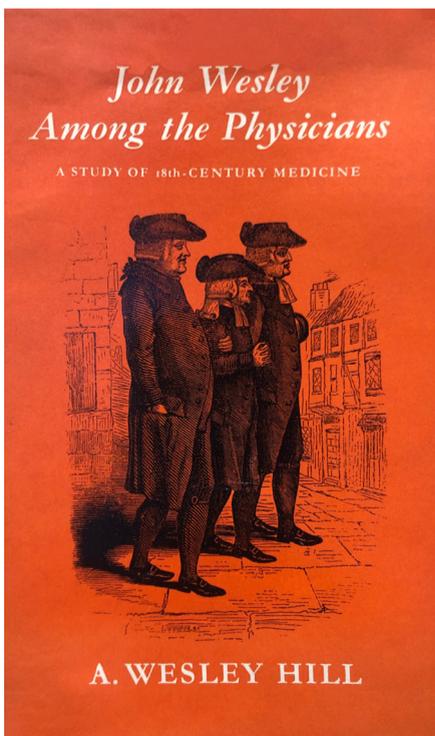
실험과 경험,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 당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민과 관심 속에서 상류층만이 누리던 의술을 보편화한 웨슬리의 노력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어떤 관심을 두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10

‘의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살던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자영농의 몰락,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붕괴, 노동문제, 도시화와 빈곤의 문제가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사회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기초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도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때때로 정부 관료나 귀족들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운동은 정치적인 개혁 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그들이 종교적이고 근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의 운동을 계층 분열이 아니라 사회 통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에는 ‘의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존 웨슬리 : John Wesley Among the Physician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세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존 웨슬리가 왜 의학에 관해 관심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권위로 의학에 대해 연구했으며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웨슬리의

전기치료와 기초 의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표지에는 스코틀랜드의 의사 제임스 해밀턴, 존 웨슬리, 성직자 조제프 콜이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키가 작은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의학을 공부한 적은 없지만, 당시 많은 의사와 교류하며 정보를 모아 대중 의학에 대한 책(Primitive Physick: 기초의학)을 보급하고 치료법을 알렸습니다. 이 책은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의학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존 웨슬리는 전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익명으로 전기 치료에 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존 웨슬리를 영국 의학의 개혁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종교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톨레 레게의 힘

- 목회현장 -



조성한 목사 (4선교구)

386년 여름, 밀라노의 한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성 어거스틴은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Tolle lege, tolle lege) “집어 들고 읽어봐!, 집어 들고 읽어봐!” 아이들의 노래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에 홀린 듯 고개를 숙여 아무 책이나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집어 들자,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14절이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한 가닥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명의 온갖 어두움이 스러져 버렸나이다.’(고백록 8.12) ‘집어 들고 읽어봐’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구절을 읽고서 어거스틴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양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레 레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을 현재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설교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읽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시작점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을 ‘상징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4선교구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성경통독 캠페인 중입니다. 장로님은 5독, 권사님은 3독, 집사님은 2독, 성도님은 1독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 김모 권사님께서서는 16독을 하셨습니다. 올해 광림의 모든 교우들이 톨레 레게의 힘을 체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성경책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Toby Mac)

<광림남교회> 교사 어워즈



1월의 마지막 주일 광림 남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 어워즈를 진행하였습니다. 3부 예배 후 약 30분가량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로서 헌신하며 활동한 사진 영상과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영상 편지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믿음을 지

켜가는 아이들을 보며 몽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담임목사님께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학교를 지켜주신 교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

하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담임목사님 말씀으로 인해 2021년 교사의 직분 더욱 최선을 다해 감당하길 모든 교사분들이 결단하였습니다.

광림남교회 교사어워즈! 교회학교 교사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올해에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사 어워즈가 2021년을 맞이해서 갖는 남교회의 첫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윤유준 전도사(광림남교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할지어다!

<광림서교회>



2021년 1월 첫 주일 저녁예배, 금요 은혜의 밤부터 새로운 찬양팀이 세워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 달 한 번 크로스워십과 함께 찬양예배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매 주 찬양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예배를 섬기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신 재능에 따

라 찬양인도자로, 싱어로, 연주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섬기는 가정은 육아로 인해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고 격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찬양팀원의 고백은 한결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온전한 예배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나아가 우리교회를 넘어 청라 지역에 찬양의 물결이 넘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내 안의 간절함과 갈망이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팀이 되기를”

이러한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배이기에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덕민 목사(광림서교회)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경조위원회

<광림북교회>



2021년 71교구 광림북교회 경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식사도 못하고, 모임도 많이 축소되었지만, 예배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께서 자리에 남아 경조총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조총회에 앞서 지난 2년 반 동안 북교회의 시작부

터 경조회를 이끌어 주신 홍승방 권사님께 담임목사님의 이름으로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경조위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면서 성도님들의 경사, 조사를 살뜰이 챙긴 경조위원장님과 임원들에게 담임목사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경조위원장 및 교구회장으로 임명되신 정환명 권사님의 사회와 인사로 경조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환명 권사님께서서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 다짐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기도와 권면의 말씀, 새로운 경조 임원진의 소개, 71교구 조양식 전도사의 인사 등 모든 순서가 은혜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북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고 정착하신 성도님들께 광림교회 경조회의 회칙과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광림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신천 집사님 일곱 분께서 제공해 주신 떡으로 인하여 경조총회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본당에서도 부흥하는 교구는 ‘경조위원회’가 잘 되는 교구입니다. 우리 광림북교회도 경조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올 한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적 비전과 방침 아래 적극적 신앙과 일치된 순종으로, 풍요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광림북교회 경조위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광림교회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남선교회총연합회>



남선교회총연합회는

제5대 담임으로 김선도 목사가 1971년 부임한 이후, 1972년 남선교회총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신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한 이후인 1983년 남선교회총연합회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는데, 당시 교인은 13,000명이며, 4선교구 14교구로 구성되었다. 2016년 제9대 회장으로 박기연장로가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교회 포함 15개 선교구연합회, 39개 교구, 205개 개체선교회 총 2,650명의 선교회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김정석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 달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목표

남선교회총연합회 목표는 빛의 중심 선교회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라는 광림교회의 목회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말씀으로 뜨겁게, 주 안에서

새롭게, 세상의 빛 되게 하는 남선교회연합회가 되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과, 받은 은혜와 사랑을 교회와 이웃에 나누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선교회연합회를 지향한다.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요 활동

남선교회의 업무는 영성, 선교, 봉사, 나눔의 4개 핵심까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영성분야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교육을 통해 영적 지도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주일 저녁, 수요 치유의 신학, 금요 은혜의 밤 등 예배에 적극 참석하며, 춘계·추계산상기도회 개최 및 리더십세미나와 하계수련회 등을 주관한다.

선교분야는 군선교를 포함한 청장년 선교와 국내의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통일성취기도회와 진중세례식 등 군선교, 스테이션페스티벌을 비롯한 개체선교 활성화와 지

교회 및 청년선교국 지원 등 국내선교 부흥, 그리고 몽골선교센터를 비롯 국외선교지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봉사는 선교구별 체육대회 및 선교구 성가제 등 각종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나눔은 이웃사랑과 돌봄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결혼식 때 '화환대신 사랑의 쌀' 운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장애인 시설 등에 나눔행사를 펼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과 사랑의 연탄나눔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비전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펼쳐질 사업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는 "스테반선교회를 비롯 개체선교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남선교회 조직에 있어서도 스테반, 디모데, 바울, 웨슬레선교회를 지원하는 선교센터를 두었으며, 이곳에서 개체선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속화나 개체선교회 등 소그룹이 멈추지 않고 계속 모임을 갖고 있다 보면, 온전한 대면예배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성된 선교회비는 미자립교회 및 해외 선교센터 등 국내의 선교와 이웃돌봄 등 나눔행사에 차질없이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 전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31 회당(Synagogue)



“
 ‘회당’이라는 용어로
 완전 고착되기 이전에...
 프로슈케(προσευχή 기도하는 곳)
 하기오이 토포이(Ἅγιοι Τόποι 거룩한 곳)
 카할(קהל 모임)
 베틀(ה)크네셋(ת)טנסנב(ה)티브
 때로는 콜레기움(Collegium)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갑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산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까지(70CE)는 성전에서 제의를 드렸지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로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전과 회당이 공존했거든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랍비들이 회당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딱히 통일된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회당의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필로, 요세푸스). 회당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첫 번째 사람 모세로부터 회당의 유래를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기 중에 회당 제도가 생겨났다는 견해입니다(Sionius, Mene, Friedländer).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이나 유다 땅에서 쫓겨나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떠난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성전 기능의 일부인 기도와 율법의 전수를 대신하는 회당의 제도가 생겨났고 유다 사람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

가 1970년대까지 회당 제도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시아 시대(640~609BCE) 이후 회당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Morgenstern, Weingreen, Löw) 요시아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특징은 제의의 중앙화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는 것이지요. 요시아 이전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산당에서 제의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가 커지면서 요시아가 제의를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킨 거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제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신앙 교육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안식일 마다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교육의 장이 산당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지되면 신앙의 두께가 얇아지게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회당 제도이며 이 회당 제도의 뿌리는 성문 어귀에서 모이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의 견해와 그 논지의 흐름은 비슷하지만 회당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시대를 요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ca.140~37BCE)로 보는 것입니다(Hengel).

다섯 번째,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뒤(70CE)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Kee, Cohen).

수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있지

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연구하는 연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유대교 회당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이론가들은 회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다른 기능들에 주목했습니다.

회당은 (1)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제의적 기능, (2)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정의 기능, (3) 유대인 공동체가 공동으로 어떤 결의를 할 때 회의를 하는 장소로서의 기능, (4) 특별한 안건을 가진 회의라 부를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모임의 장소로서의 기능, (5) 먼 지역의 유대인이 자기 지역으로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숙박을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능들을 말하고 있는 고대의 문서들을 찾아 연구하면서 회당의 역사를 추적하였고,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유대인 거주 지역들을 발굴하면서 회당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고학 유물이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회당은 아마도 기원전 3세기에 슈디아(Schedia)와 카이로(Cairo)에 세워진 기도처(προσευχή 프로슈케)일 것입니다. ‘프로슈케’는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입니다.

‘수나고게’ συναγωγή 라는 말이 ‘회당’이라는 용어로 완전 고착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기도와 율법의 연구,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체의 만남과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함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

된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슈케’(기도하는 곳), ‘하기오이 토포이’ Ἅγιοι Τόποι(거룩한 곳), ‘카할’ קהל(모임), 그리고 ‘베틀(하)크네셋’ תיב(ה)טנסנב(ה)티브 이었습니다(때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콜레기움’ Collegium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집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 장소를 ‘프로슈케’라 불렀는데, 기원전 3세기의 회당(프로슈케)을 건설한 내용의 비문이 발굴 됨으로 회당의 역사를 증명하는 고고학 유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라트룬(Latrun)과 모디인(Modifin) 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의 회당을 발굴하였습니다.

문서 고고학과 현장 고고학의 도움으로 회당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회당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후 성경 읽기가 성전을 벗어나 장소와 절기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가능해진 이후로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유대아(Judea) 지역과 디아스포라 모두에 있었으며, 건물의 양식이나 구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자유로웠다. 성전과 회당이 공존하던 시기에 성전은 주로 제의의 기능을 그리고 회당은 율법 연구와 규칙적인 모임과 기도의 장소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성전 멸망 이후에는 회당이 유대교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진설명

1 골란고원의 가믈라(Gamla)에 세워진 1세기 회당(Synagogue)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